opusdei.org

## 대림 2주일 묵상

2021-12-5

₩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## 3,1-6

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,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, 헤 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,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 스 지방의 영주로,리사니아스가 아빌 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,2 또 한나스 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,하느 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.3 그리하여 요 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 니며,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를 선포하였다.4 이는 이사야 예언자 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 로이다."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 리.'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 아져라.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 은 평탄하게 되어라.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"

## 묵상

세례자 요한 성인은 '선구자'로 불립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. 또한 그는 겸손한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'나는 사제 집안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이오.'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
'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지나지 않소.'

편지 봉투 같은 그 목소리는 잊혀지기 마련인 존재 입니다. 메시지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.

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로 보내어 그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만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.

그는 그 '목소리'이고 예수님은 하느 님의 말씀입니다!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,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 도로 만들었습니다. 겸손은 진실한 사도들의 특징입니다. 선구자인 증인 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겸 손함을 가지고 있고, 그렇기에 예수 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간 후 자신은 옆으로 빠집니다. 그렇게 함으로 예 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도록 합 니다.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.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 예수 님께 그들을 데려가는 선구자이며 증

인입니다. 우리의 임무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그분께서 원하시거나 필요한 것으로 그들을 만들도록하는 것입니다.

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

따르지 않았습니다. 몇몇 사람들은 요한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 나 요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그 는 어쨌건 증언을 하였습니다. 영국 에서 많은 영혼들을 가톨릭교회로 받 아준 복자 도미니코 바베리의 겸손함 은 사도직 활동에서 효과를 내었습니 다.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었고, 모욕 을 주었으며, 진흙과 돌을 그에게 던 졌습니다.

복자 도미니코 바베리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.

그는 돌을 집어 올려, 키스를 한 후 귀한 돌을 모으는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. 그는 침착했고 그의 적대자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을 인내롭게 지킨 덕분에 그가 그 적대자들을 이긴 시간이 왔을 때 영국에는 가톨리시즘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.

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많은 영 혼들을 위해 '선구자'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.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 : 정대영 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<a href="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aerim-2juil-mugsang/">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aerim-2juil-mugsang/</a> (2025-11-29)